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아일랜드 더블린

드글 사진대 허용선 건강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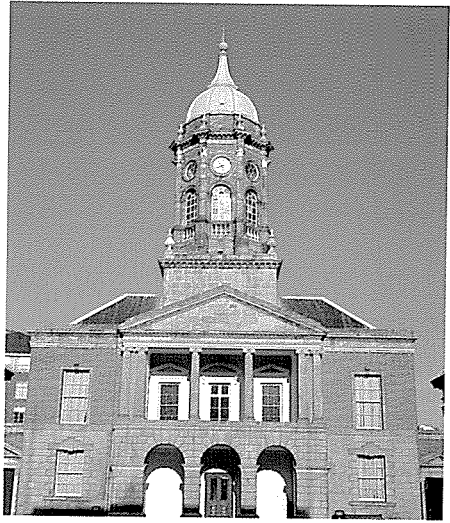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의 모습

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아일랜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기 때문 이다. 1999년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9,000달러, 인당 GNP(국민총소득) 2만 6,960달러로 아일랜드는 유럽

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다. 이 나라의 경제는 미국의 IT(정보통신) 산업 붐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한 덕에 지난 1993년부터 10년간의 고도성장을 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유럽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과거 아일랜드는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살기에 열악한 나라였다. 1840년대 감자 기근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100만 명은 살 길을 찾아 아일랜드를 떠난 쓰라린 사연을 안고 있다. 인구수는 19세기 중반에는 700만 명쯤 되었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한때 300만 명을 밑돌았다. 최근 아일랜드가 잘 살게 되자 무려 130년만에 인구가 다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는 한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나 아일랜드의 국토 면적(7만 282km²)은 남한의 5분의 4쯤 된다.

아일랜드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조지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세무스 히니 같은 네 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인구가 4백만 명 정도인 작은 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낼 수 있었는지 그 문학적 배경에 호기심을 갖게 한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항해술도 능하여 신대륙인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수도사이자 항해사인 성 브렌단이 저술한 자료에 의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륙에 진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을 지



▲ 더블린 城. 이 곳은 한 때 영국의 아일랜드 통치를 상징하던 곳이었다.

낸 명문가인 케네디家도 조상은 아일랜드 사람이며 빌 클린턴도 조상의 일부가 아일랜드 사람이다. 현재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백인 중 상당수가 아일랜드계라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술과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런 기질이 한국인과 많은 공통점을 느끼게 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비슷하여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흩어진 아일랜드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온다. 한국의 추석 때 귀성 행렬처럼 더블린의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1천여 년 전에 세워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인 더블린은 25세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템플 바 주변은 더블린의 대표적인 문화지역으로, 현대 예술과 문화 행사가 주를 이루는 곳이다. 미팅 하우스 광장(Meeting House Square)은 야외에 마련된 멋진 공연 장소로 방문할 만한 여러 혁신적인 문화 센터들에 둘러 쌓여있다. 여름철에 이 곳에서는 라이브 공연, 영화 상영 및 가족 행사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현대 문화를 축하하는 자유



▲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아일랜드 청소년들. 그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며 희망차게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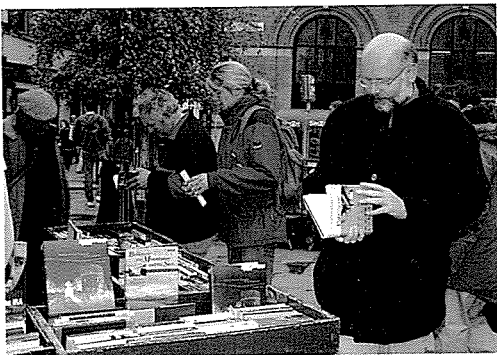
로운 야외 축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에 소규모 재배상 및 농가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빵, 과자, 치즈, 기름, 해산물 등을 사고 파는 시장이 선다. 토요일마다 광장에서는 구 서적에서 신간에 이르는 책은 물론 고전에서 소설까지 망라한 책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임시로 개장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더블린은 '1,000개의 펍, 1,000개의 밴드'가 있는 도시다. 더블린 시내의 유서 깊은 펍(pub·선술집) '템플즈 바'는 날이 어둑해지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대표 브랜드인 흑맥주 기네스 한 잔씩을 앞에 놓고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실내는 왁자지껄하다. 기네스 맥주는 더블린의 가장 중요한 명물 중의 하나이다. 맥주 공장은 투어가 허용되지 않고 맥주 박물관 만이 개방되어 1769년 이래로 이곳에서 제조된 그 유명한 흑맥주(stout)의 제조 과정을 알 수 있다. 시음장도 있는데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출입이 제한된다.

더블린은 아일랜드 수도이자 세계 문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시내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은 뛰어난 문인인 예이츠와 오스카 와일드, 버나드 쇼, 조나단 스위프트 등이 졸업한 곳이다. 1592년에 세워져 아일랜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12,000여 명의 재학생과 1,200여 명의 교직원이



▲ 더블린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부들 갖 만들어진 빵이나 신선한 농작물을 거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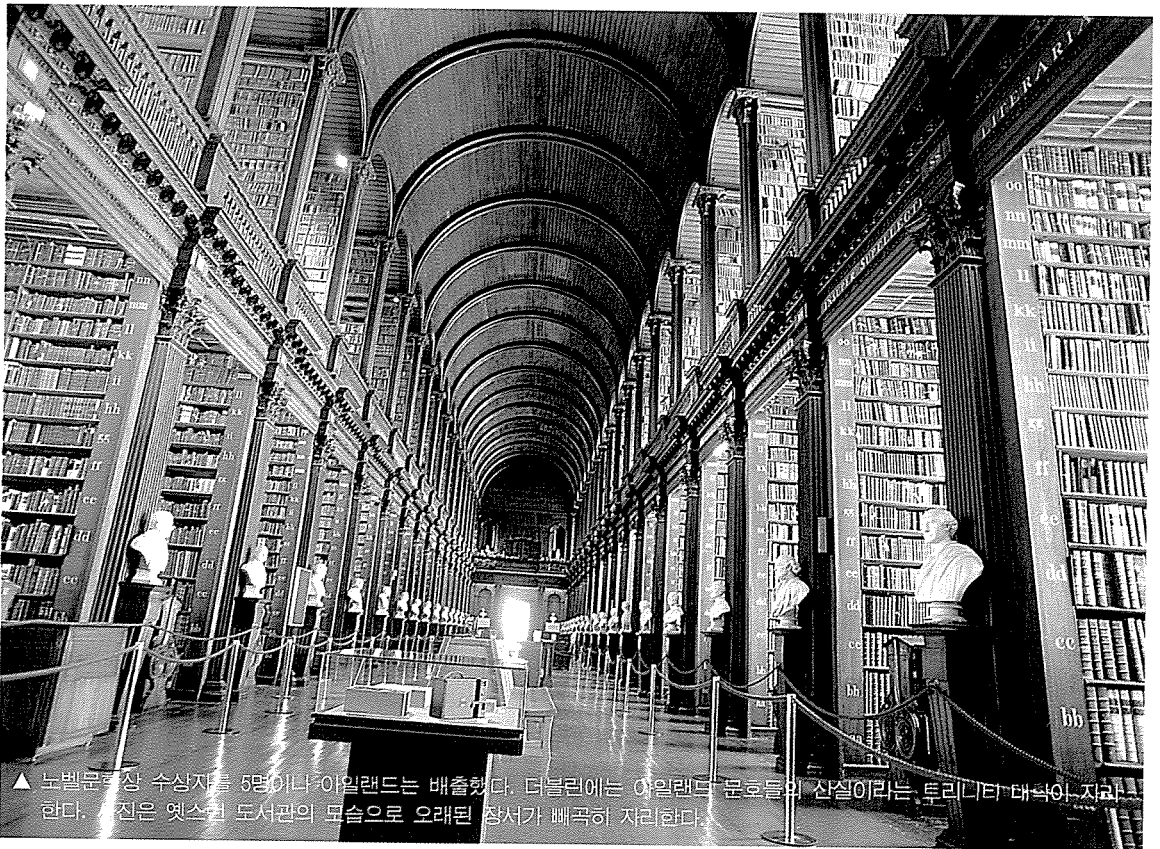
▲ 주말마다 열리는 더블린의 책시장에서 오래된 고서를 살펴보는 더블린 시민들.

일하고 있다. 드물게 한국 유학생도 만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벌 수 있다고 자랑한다. 인근 나라인 영국에 비해 등록금 등은 월등하게 저렴하나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은 수도원처럼, 웅장하고 경건한 기분이 드는데 책장마다 빼곡하게 꽂힌 고서들은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한다. 아래쪽과 위쪽 책장, 그리고 난간까지 책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8세기 작품인 ‘켈스의 책(The book of kells)’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이 책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희귀하고도 중요한 책이다. 이것은 약 1,200년 전 네 명의 수도사가 양피지 위에 라틴어로 기록한 것으로 각 장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삽화가 곁들여진 것이 특징이다.

더블린의 성 패트릭 성당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아일랜드의 사랑받는 수호신인 성 패트릭을 기리는 장소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400년대에 성 패트릭이 도입한 크리스티교를 선뜻 받아들였으며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열렬한 가톨릭 국가이다. 성 패트릭의 영향으로 더블린을 비롯한 아일랜드 곳곳에서는 수많은 수녀원과 수도원이 생겨났다. 아일랜드에는 1879년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다고 전해지는 녹(Knock) 성지(聖地)가 있다. 이곳에는 경이로운 모습을 기록한 기념비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는 석상들도 많이 있다. 197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도 녹을 방문했다.

아일랜드 경제력의 중심지인 더블린은 활기에 넘친다. 90년대의 가파른 성장세는 줄었다 해도 올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5%대의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의 고도 성장은 아일랜드에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침략국이었던 영국에 대한 열등감을 씻을 수 있는 자신감도 안겨주고 있다. ☺



▲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5명이나 아일랜드는 배출했다. 더블린에는 아일랜드 문호들의 산실이라는 트리니티 대학이 자리한다. 사진은 옛스런 도서관의 모습으로 오래된 장서가 빼곡히 자리한다.